朝鮮日報
夕刊
十三日(日)
本紙夕刊十二面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本社發行定期刊行物 朝光 女性 少年

難症仙藥
趙膏藥

社說
退學生率로본 農村敎育
特別한保護指導가必要

一

京畿道 學務課에서 調査한바에 依하면 今年五月末現在 簡易學校 兒童數는 六千四百餘名이엇섯는데 九月末에는 五千七百餘名밖게 아되어 約一割一分의 減少를 보엿고, 小學校 兒童數는 十四萬四千四百餘名이던것이 十四萬三千餘名으로 一割弱의 減少를 보엿다。그런데 京城府가튼데는 退學生이 업슬뿐더러 轉學者가 들어갈 餘地가 생기지 안코 新學年이나 되면 倍 又는 三倍의 志願者가 잇스니 中途退學者는 學齡 農村學校兒童임을 알수잇다。이 農村兒童의 退學率이 만흔 것은 京畿道에 限한것이 아니오 朝鮮農村全般에 亘한 現象일것으로서 重大視하지 안흘수업다。

二

農村兒童의 退學이 만흔 理由는 만타。農村은 一般으로 疲弊해잇는것이 事實이다。農業이 元來 一年一次밖게 收穫이 업는것이기때문에 가튼資本을 던저도 農業의 利潤은 적다。그런데 農村에는 自作農이 적고 小作農이 만흐니까 自然 農村의 收入은 적고、都市에 잇는 地主 又는 小數의 地方地主는 富를 獨占하야 農村에分散치안흐니까 自然 農村은 貧寒하지 안흘수업다。貧寒한者가 만흔지라 子女를 學校에入學시키는것은 二次、三次의 問題로 생각치 안흘수 업다。

三

둘재 農村은 敎育에 對한 理解가 적다。敎育을 바드면 그만치 物質的 報酬가 곳 커지는것으로 아는것이 常情인데 農村小學校를 卒業하엿자 이제곳 收入잇는 일을 할수는 업다。只今은 面書記 巡査가 되에도 志願者가 만하서 如干한 人材가 뽑히지 못하는 事勢다。月謝金 물고 工夫해야 別所得이 업시니 農事를 그대로 지을바에는 學校에 너흘 必要가 업다는 것이 農村人의 心理다。그러므로 退學도 自然히 만타。그러나 都市서는 小學卒業生도 就職할길이 만코 따라 收入이 잇스니까 入學도 다시키라하고 退學도 적게 시킨다。이것이 農村과 都市學校의 敎育에 對한 態度가 다른點이다。

四

勿論 敎育의 根本目的이 就職又는 收入의 增加에 잇는것이 아님은 贅言을 不要하는바이다。特히 小學은 國民必須의 最初限度의 敎育을 授與하는것으로서 누구나 배워야 할것이다。그러나 農村의 疲弊한 事實과 敎育에對한 意義를 徹底히 理解치 못하는 農村人은 自然 그런 생각을 가지기쉽다。그러므로 當局은 모름지기 初等敎育의 根本精神을 徹底化하도록 努力할지니 이리하라면 먼저 農村을 潤澤케할것이오 둘재는 學父兄들의 負擔을 輕減할지오 셋재는 初等敎育의 意義가 就職에 잇지 안타는것을 普及시켜야 할것이다。即 農村을 潤澤케 하라면 現在農村振興課에서 行하고 잇는外에 自作農創定을 實施하며 共販、共購組合을 獎勵하며 金利를 사게 融通하며 貧者에의 稅金을 減免할것이오、學父兄의 負擔을 輕減하라면 授業料를 免除하며 敎科書를 貸與하며 學用品을 無料配付하며 點心을주도록할것이며、初等敎育의 意義를 徹底시키라면 無識이 얼마나 悲慘한 結果를 招來한다는 講演會를 開催하거나 포스타를 내걸며 活動寫眞으로 巡回宣傳시킬것이다。特히 戰時下에잇서서 敎育이 얼마나 重大한가를 생각한다면 이런것쯤은 緊急히 行할 義務가 잇다고 밋는다。

蔣、重要軍事機關을 沅陵(湖南西部)에遂移轉
麾下中央軍西遷도開始

【香港十二日發同盟】岳州陷落으로因하야 長沙는 直接威脅을맛게되엿스므로 蔣介石은 軍事機關을 맨먼저 十一日湖南省南部에移轉하엿는데 移轉한곳은 沅陵이라고보인다 그리고 長沙湘潭의 動搖는자못 甚하야 同方面의住民等은 續續湖南省西部地方에避難을 開始하엿다한다

【香港十二日發同盟】確實한側에 들어온 情報에依하면 中央軍第二十六師는 十一日湖南省沅陵으로부터 川湘(四川湖南)公路에沿하야 四川省酉陽에 到着 現在 湖南省東方으로부터 西部湖南一帶에 移動中이다 中央軍은 約十五萬이라고 推定되는데 此等部隊는 續續 四川、貴州方面에 移動中으로 中央軍의 西遷運動은 드디여 本格的으로 開始될 것으로보인다 그리고 支那側情報에依하면 蔣介石은 長沙를放棄하는同時에 軍의主力을 西部湖南에 集中시켜 四川에 十五萬 貴州에十萬 또衡陽이 陷落되면 廣西에十萬을 入境시킬計劃이라한다 重要軍事機關을 沅陵에 遷移하는外 衡陽、桂林兩地方에 大本營行營을 設置하엿다고한다 (寫眞은 蔣介石)

카ー駐支英大使 蔣介石과再次會見

【上海十二日發同盟】重慶來電에 依하면 蔣介石과 카ー英大使는十二日湖南省某地에서 再次會見을 行하엿다고 傳한다 지난三日에는 湖南省衡陽에서 最初의 카ー蔣會見이 行하엿는데 十二日에도 兩者가 會見한것은 자못注目을끈다

江南支那軍戰意喪失

【香港十二日發同盟】情報에依하면 湖南防衛의 第一線陣地 岳州를放棄한 支那軍은 湘陰、汨羅、平江線에 若干部隊를남겨두고 退却部隊는 湘鄂邊區總司令 陳誠의 指揮下에 너어 援護하게하고잇는데 連戰連敗로士氣甚히沮喪하야 戰意를喪失한 主力部隊는 長沙湘潭兩地에서 寧鄕 安化로移動中이고 各部隊도 그補充部隊는主로 張治中이訓練한湖南의壯丁으로構成되여잇서 逃亡者가 續出하는狀態라하며 他方 農民은不公平한 徵兵制度는勿論 不正한徵發과苛重한徵稅에 呻吟하고잇서 土匪群에投하는者도多數이다 江南東部南部의 山岳地帶에는 多數土匪團이出沒하고잇는데 就中第七行政區인 江南西部芷江 晃縣 黔陽、綏寧 靖縣道路等 數千에達하는 武裝土匪가橫行하야 沅陵軍當局은 그討伐에 頭痛을 알코잇다한다

漢口佛租界 流言과惡疫으로苦痛

【漢口十二日同盟特派員發】漢口의治安은 占領後 皇軍에依하야 거의常態에復歸하야 復興色이漲溢하고잇는데 이에反하야 獨自의行政을實施하고잇는 佛蘭西租界는 百萬避難民을 包藏하고 只今流言蜚語와 惡疫發生에 頭痛을알코잇서 皇軍占據에따라市街는 明暗두가지로 明白히갈리어잇다 同租界에는 最近虎列刺가猖獗하야 今月에入하여서도 나날이數人의死亡者가잇고去十日은 九名의死亡者가잇섯다 그리고抗日分子、共産黨이 盛히跋扈하야 『一步外出하면 日本軍에게 全部强奪된다』고 威脅하므로 裕福한者는 속히는줄알면서 三十弗이라는 房貰를내며 個中에는 一年間房貰를 前納한者도잇다는 狀態이다 我軍은 此等 不憫한 支那人良民을 救出하기위하야 日本軍은 善良한支那人은 決코 괴롭게하지안는다고 呼訴하야 同租界의 惡疫과 食料難 或은 物價昂騰에 狼狽하고잇는 支那人을 救護하기로 되엿다

國防上缺陷을指摘 佛國民奮起要望
佛大統領休戰記念祝宴席上서

【巴里十一日發同盟】佛國大統領 루브랑氏는 十一日世界大戰休戰記念을 祝賀하기위하야 佛蘭西本國、佛領植民地及 各聯合國의 在鄕軍人代表를 巴里에招待하고 十一日午前 盛大한 祝宴을 開催하얏는바 席上루브랑大統領은 大戰以後의 世界情勢를 懷古하야 佛國의 國防上缺陷을 率直히 認하고 國民의奮起를 要望하야 如左한 演說을하엿다

國際聯盟의 失敗가 明白히된今日 佛國이平等한立場에서 他國에 交涉하기위하야는 結局 佛國自身이 强力이되지안흐면 안된다 佛國現狀은 財政上及社會制度에 許多한 弱點을가지고잇다 이가튼憂慮할狀態를 匡救함에는 速治가絶對必要하다 余는 佛國의資本家勞働者에 對하야 資本家는 佛國産業에 投資하고 勞働者는 必要한時間的勞働을마다서 各各自國救濟에 貢獻하기를希望한다 余는 全佛國人에 擧國一致를 要求한다 這般歐羅巴危機에際하여는 佛國本土와 植民地는 緊密히 連帶하야 各危機를防止하엿는데 今後益益 이結合을强化해가기를 要望한다 (寫眞은 루브랑佛大統領)

金準備再評價等 佛政府新財政案內容

【巴里十二日發同盟】佛政府는十二日午前會議에 繼續하야 國務會議를 開催하고 루브랑大統領司會下에 레이노藏相이 提出한 財政經濟再建案을 審議한 結果 全會一致 이를承認하고 드디어 午前中 緊急令으로써 公布키로되엿다 新財政經濟案은 傳統의 自由主義經濟를 基調로하고 豫算의 均衡回復을 目標로하야 生産擴充을 企圖한것으로 그內容은 如左하다

◆佛銀行의 金準備再評價
一、現在의 爲替루트는對英百七十九프랑 程度인데 一七〇프랑을基礎로서 佛蘭西銀行所有金의評價改善을行함

◆四十時間勞働制緩和
一、一週四十時間勞働制는 原則으로서 放棄치안흐나 現在의 經濟情勢의 重大性에 鑑하야 特히免除條項을設함
一、今後雇傭者는 官廳에 特別屆出을 要치안코 時間外勞働을 施行할수잇슴
一、時間外勞働에 對하여는定時勤務以上의 比率로써 手當을 支給하기로함
一、一週五日制는 原則으로서廢止하고 六日制로復興함

◆勞働爭議調停條項
◆軍需産業에 勞働違反罰則强化
◆失業對策
◆出産獎勵策
◆價格調整案
◆稅制改革
一、間接稅를增徵함
一、一切職業을不問하고 一律로 二分의特別所得稅를賦課함

【巴里十二日發同盟】레이노佛藏相은 지난一日新任以來 銳意財政經濟再建案의 立案을 急히하고잇든바 겨우 成案을엇게되엿스므로 佛政府는十二日午前十時半부터閣議를 開催하고 同案을 가지고 熟議를거듭하엿스나 午前閣議에서는最後決定을보지못하고 午後三時부터 루브랑大統領司會下에 國務會議를 開催하고 新財政經濟再建案을確定하야 十三日 午前中에 이를 公布키로되엿다 新財政案內容은 極秘에부치는바 各方面情報를綜合하여보면 레이노藏相의 提案內容은大要如左한것이라고보인다

一、政府는 經費의徹底的 節減을實行함
一、稅制改革에依한 稅收增加를 圖함
一、商工業을 振興하야 國民所得의 增加를圖함
一、佛蘭西銀行所有金 評價改善에依한 政府所得 增大를圖함 (評價改善結果 政府는約三百五十億法의 利得을어들豫算)
一、四十時間勞働制를 緩和하야 生産增加를 꾀하고 特히勞働者의 收入增加를 꾀함
一、軍需工業의 不當利得及各會社의 積立金에 對하야 重稅를 賦課하야 負擔均衡을圖함

反獨派攻擊에對해 英政府獨逸에抗議提出

【倫敦十二日發】英國政府는 十一日獨逸政府에對하야 獨逸新聞의 英國反獨派攻擊取締를 要求하엿는데 十二日의 타임스 伯林特電에依하면 駐獨英代理大使오그리비포브스氏는 十一日 獨外務省을 訪問하고 獨逸各紙가 猶太人排斥運動을한結果 英國人이 바든 財産損害를 列擧하야 嚴重抗議를 提出하고 獨政府의取締를 要求하엿다

猶太人彈壓法令 獨重大會議서決定

【伯林十二日發同盟】獨逸政府는 最近佛國外交官狙擊事件과 關聯하야 頻發한反猶太人의 爭擾事件에鑑하야 十二日괴링空相司會下에 猶太人問題에關한 重大會議를開催하야 게뻴스宣傳相、프리크內相、크로지크藏相、프랑크經濟相、귀르트法相等出席 愼重히 討議한結果 猶太人彈壓의三法令을 發令하엿다

一、駐佛獨逸大使館書記官이 猶太系波蘭人에게 暗殺當한事件은 獨逸國內의 猶太人도 責任을 나누어야한다는 見地에서 獨逸國內의 猶太人全體에對하야 十億마르크의 罰金을 科한다
一、最近獨逸各地에서이러난 反猶太人爭擾는 라ー트書記官暗殺事件에對한 正當한 憤慨의 表現이라는 見地에서 이로因한損害는 猶太人敎會와 商店이迅速히 猶太人自身의손으로 修理함이 當然하다
一、一九三九年一月以降 猶太人의 小賣商店 通信販賣業 商店代理店及 手工業經營에 從事함을禁止함

獨逸國內의 猶太人財産은 約百億마르크로 推定되는데 最近의 爭擾事件에際하야 約十億마르크의 損害를입엇다하며 今回의 罰金에依하야 更히十億마르크를 일케되엿다 更히小賣商其他 經營禁止는 現在이미 醫師、辯護士、銀行家等도 放逐되여 猶太人에게는 致命的打擊이라한다 그리고 消息通에依하면 괴링空相은 近近更히 猶太人에關한 若干의法令을發布할意向이라한다

東亞新體制에即應 獨自外交를展開
日滿支關係特殊性强調

【東京電話同盟】帝國外務省은 東亞新體制建設의 根本方針에 即應하야 從來의 外交原則을 揚棄하고 獨自的外交를 展開하려하고잇다 即 東亞의 新秩序建設에 伴하야 東亞의 新體制下에잇서서 第三國의立場과 新體制下에 建設될 日滿支三國關係의 特殊性과의 사이에 생길摩擦을 帝國外交는 獨自的立場에서 處理하려하고잇다 이獨自的外交原則은 近近發表하게될 門戶開放、機會均等에關한 對米回答中에서 그片鱗을 示顯하리라고 보고잇는데 右根本原則은

一、帝國은世界平和를爲하야 새로운 世界秩序의 一環으로서 새로운 東亞秩序를 建設할것
一、世界列國으로하여금 새로운 東亞에잇서서 日本의政治的優位性을確認시킬것
一、새體制에잇서서 日滿支三國緊密한 關係의特殊性을 認識시킬것

이라는 三點에잇는바로 有田外相은 이根本方針을 遂行하기위하야 具體的으로는 口頭外交、議會의 壇上에서 强力한無言의 現實에依하야 認識不足의列國을 啓蒙할方針을 堅持하는同時에 共通된世界觀으로써全世界의秩序建設에 邁進하고잇는 現狀打破 諸國과의緊密한 關係를 强化하야 現狀打破樞軸의 重壓下에 舊態勢墨守하려는 認識不足의 諸國을 誘掖하는態度로 邁進하리라고보고잇다 (寫眞은 有田外相)

004098

獨滿親善에專力 와駐滿獨大使聲明

【新京十二日發同盟】初代駐滿獨逸公使와그델博士는 十二日信任狀捧呈式後 在京記者團에對하야 如左한聲明書를 發表하엿다

今日皇帝陛下게捧呈하는 信任狀內에서 아돌프·히틀러總統은 『新京에獨逸國公使館을 開設하는것은 獨滿兩國間의 親善關係를適當히 表現하기위함이다』고強調하엿다 駐滿初代公使로서 余는 兩國政府가今年五月十二日에修交條約을 締結하야 互相公使를任命하려는決心이 兩國家와兩國民에依하야 永久幸福의 結果를齎來하기를 願望한다 獨滿親善에對한 總統의希望과 意志를 全力을다하야 遂行하는것은 나의光榮스러운任務이다 兩國民의 親善關係는 幾多發展의 將來性이 만흔 通商關係成立으로써 充分히 實證되엿다 나는獨逸國民이 滿洲國의 經濟的建設에 益益增大하는 關心을가지고보고잇다고 밋는다 獨滿間의 經濟的關係는 今年九月十四日의 貿易協定에依하야 이미 確立되여잇스므로 나는此에 盡力貢獻하는 同時에 國民生活의 모든 分野에잇서서 互相理解를 增進하기위하야 文化的友好의努力을 實現하기에 特히 盡力할생각이다 獨滿間의 親善關係는 即 獨日兩國間의親善을 順應함에잇는것은바로 나는 三國民의幸福과 世界平和維持에對하야 國家的協調에의 特殊的保障을하는데잇다고믿는다 아돌프·히틀러總統은 强力한 새로운國家滿洲를 完成한滿洲國의 一大成功을빌고잇다

鎭海要港部司令官 有地中將一行入京

鎭海要港部司令官 有地中將은 十三日午前七時三十分着 列車로 入京中이든바 十五日午後一時十分發列車로 歸任豫定

作戰地域關係로 長江自由航行은尙早
英米佛三國要求와帝國의方針

【東京電話同盟】揚子江自由航行에關한 英米佛三國의 要求에 對하여는 旣報한바와가티 揚子江은 이現在 아직作戰行動地域內에잇서 各國船舶의 自由航行을 認定할時期에 達하지안흔다는 帝國政府의 態度는 十四日 有田外相으로부터 三國大使에게 回答키로決定하고 十四日 右要求는 本來 揚子江을비롯하야 支那內地水路航行에關한 最初의 規定은 一八五八年 英支 天津條約第十條로 이에依하야 揚子江은開放되야 그後揚子江航行이 頻繁하게됨에따라 航路取締上의 規定이制定되야 即 一八六二年의 長江通商章程 長江收稅章程이 北京外交團과 淸國政府와의 交涉結果 成立되엿스므로 形式的으로는 淸國의國內規定이나 그實質은 國際協定을 가지게 되엿다 英米佛三國政府의 今番對日異議는 此點을 回想하려는것은 勿論아니나 現在重要作戰區域의自由航行許容은 作戰上支障이 생길念慮가잇고 또 事變當初의 支那軍의 長江閉鎖에 對하여는 英國은 何等抗議를하지안하야 當然한일인것가튼 態度를 取하고잇다가 皇軍이多大한 犧牲을한後 揚子江啓開作戰을 遂行하자 아직作戰行動이 終熄되지안흔今日自由航行要求를 하여온것은 너머나利己的이라 아니할수업는터로 英國其他諸國의深甚한反省이要望되야根本的으로 認識을更新하기를 期待하고잇다

三國異議에對한 回答公文作成完了

【東京電話同盟】揚子江自由航行에關한 七日付 英、米、佛三國의異議에對하야 外務、海軍兩當局은 協議를거듭한結果 十二日回答公文作成을 마첫스므로十四日 有田外相은 在京英、米、佛三國大使에게 揚子江은 現在作戰行動區域으로 아직第三國船舶의自由航行을 許可할時期가 아닌뜻을 明確히하여 諒解를求하기로되엿다

外務省辭令

【東京電話同盟】
總領事(香港) [illegible]
任特命全權公使(二等) 智利駐劄被仰付
大使館書記官(佛國) 佐藤庄四郞
任大使館參事官(二等) 伯爾在勤被仰付
預金部資金局事務官兼外務事務官 今井一男
任大使館二等書記官(四等) 命蘇聯在勤

世界週史

岳州占領

武漢陷落後 支那軍은 一部는 重慶方面으로 退却하고 一部는 粤漢線을 南下하야 長沙、衡陽을中心으로 湖南省一帶의 陣地를強化하고 頑强히 抵抗하엿스나 我軍은湖江部隊와合하야 進擊에 進擊을 繼續하야 六日에는 羊樓洞을 九日에는 通城을 攻略한後 一路岳州로 急進하야 十一日午前七時에 드듸여 岳州城을完全히 占領하엿다 이러하야長沙防衛第一線으로 粤漢線上의 要衝이며 洞庭湖畔의 重大據點인 岳州는我軍手中에 들어와서 長沙의運命도 드듸어 風前燈火와가티되엿다.

揚子江航行權

去七日 英米佛三國駐日大使는 各各文書로써 揚子江航行 封鎖解除에關하야 日本船舶만이 航行함은 門戶開放 機會均等의原則에反한다고 抗議를 提出하엿는데 有田外相은 이에對하야 揚子江航行은 日本船舶도 現在는 陸海軍使用船에 限하고 商船의 航行은 許可한事實이업서 何等門戶開放에 어그러짐이업는點과 現在는 아직도 航行을 解除할 段階에 이르지못한 點을들어 口頭로써 諒解를 求하엿다.

土耳其新大統領選任

十日 土耳其國父 케말·파샤氏의逝去에伴하야 十一日 土耳其政府에서는 緊急國民會議를 召集하야 後任大統領選擧를行한 結果 前大統領케말·파샤와 가티 土耳其共和國建國에 活動하엿고 二回나 首相을지낸 이스메트·이노누將軍을推戴하엿다 그리고바얄內相은 憲法에依하야 總辭職을決行하엿는데 新大統領은 即日 바얄氏에게 內閣再組織을委囑한바 바얄氏는 即時組閣을完了하엿다.

米國中間選擧

米國中間選擧는 八日을期하야 全國一齊히 擧行되엿는데 그結果는 上院에 잇서서는 共和黨은 七名 增加 民主黨은 七名 減少를보아 結局 民主黨六九名 共和黨二三名 其他派四名이 되엿스며 下院에잇서서는 民主黨은從來 三三〇이 二六二로減少되고 共和黨은 九〇이든것이一七〇으로 增加되며 其他派 二一名 空席 一로되엿다。이러하야 共和黨은 雌伏十年만에 上下兩院에 걸처 大進出을보게되엿다。

五中全會開催

武漢失陷後 蔣政權은 十月廿八日부터 十日間 重慶에서 第二次國民參政會議를 開催하야 今後의 抗戰方針을 討議하엿스나 左右兩派의 內部抗爭激化로 何等 意見의 表明이 잇기까지 決定을 못하엿스므로 國府는 五中全會를 召集하야 國論을 統一키로 決定하고 十二月十五日부터 重慶에서 第五次中央執監委員會全體會議를 開催키로되엿다한다.

日滿支經濟懇談會 北支側代表 十九日에東京着

【北京十二日發同盟】日滿支經濟懇談會 北支側出席者는 臨時政府建設總署長殷同 金城銀行經理 楊濟成 臨時政府實業部工商局第二科長 鄒子夷 現北京事務所長 冷家驥 特務部 石本中佐 其他諸氏外 天津側으로부터 一名이 出席하기로決定한바 一行은 來十六日午前六時二十五分 北京發 十九日 東京着의豫定이다 (寫眞은 有田外相)

第十回日滿家畜防護會議

【東京電話同盟】九日後 農相官邸에서開催된 第十回日滿家畜防護會議는 十一日로써 終了하엿는데 次回第十一回會議는 明年十月下旬 朝鮮總督府主催下에 京城에서 開催될豫定이다

今日本紙四面

日曜氣配

▲期米 買氣好感과 收穫減에 一齊强化 氣配强含
▲株式 玉整理進行中 目前材料待로 買氣躊躇氣配不定
大新 一四〇、〇〇 東新 一三六、四〇 鐘紡 一四三、〇〇 滿重 一六〇、〇〇

人事·集會

▲河口東一銀行專務(東原支店長) 帶同同行 合德出張所開店披露次出張中이든바 十三日午後歸任

八面鋒

◇第二回 米收穫豫想高 二千四百八萬石으로 發表。
◇第一回豫想에 比하야 五十七萬餘石의 增加요 昨年 二千六百萬石과 昭和五年 二千五百萬石에 버금가는 大增收。
◇戰爭은 繼續되니 米價는 高騰할거요 豐年까지 겻스니 農村은 含哺鼓腹할판이로군。
◇農村退學生이 만타니 今年은 이德에 退學生이나 줄엇스면。
◇土耳其大統領에 이노누將軍 被選。
◇後進國에는 武官政治가 適當한 模樣。
◇西班牙、체코、支那보다 그러하지 안흔가。
◇現代는 武人이 아니라도軍服을 입고 獨裁官노릇하는것이流行。
◇日 무솔리니, 日 히틀러, 日 스탈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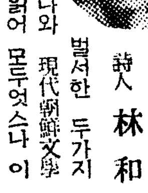
朝鮮文人全集
李箕永篇
長篇 新開地
第三回配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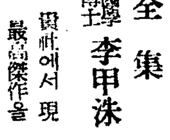
天才朝鮮의 大作品!!
文壇의 太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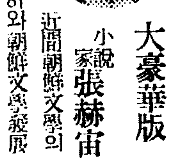
李箕永氏는 우리文壇에天才的作家이다。그의「故鄕」이江湖의絶讚을 밧고人氣絶頂에잇는이때、그의 文壇生活十餘年을通하여 가장 自信잇는第一作이라는 이新開地는오로지우리文壇의 한太陽으로 天才朝鮮의大作品이안일수업다。더구나이冊은우리文壇에『新開地』를 여럿슬뿐아니라、朝鮮二千萬人에게、새로운망을、여러준 意義기픈作品이다。滿天下讀者는、이한冊을、아니보고는、朝鮮과朝鮮文壇을말하지못할것이다。切版前速히購入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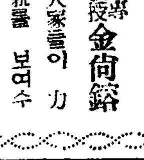
一回配本 花冠(李泰俊篇) 大發賣中
二回配本 明日의鋪道(李無影篇) 大發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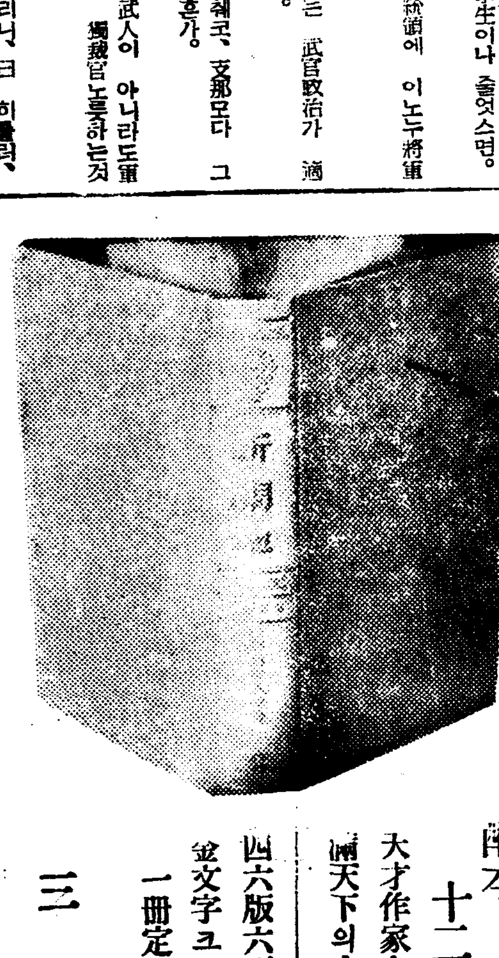
全朝鮮을 흔드는 이冊의 人氣
이冊이 한번世上에나오자 內容이조코 裝幀이華麗하고 모든것이 朝鮮第一로 世界水準에떠러지지안는다고 全讀書界는如狂如醉로 人氣가 비등하고評判이자자하다 回마다 數千部式 發賣하여 全出版界를 警動시킴은 本社의 자랑이아닙니다

文壇의 一大盛事

詩人 林和
全集을쉬운사리읽어 모두엇스나 이제다 시三文社에서 作家別로 列卷冊을 내어 掌中에 朝鮮文學의 大部分의 狀況을 알게됨은 즐거운일이요 不振을 말하는 文壇의 盛事라할수잇다。이全集에서 우리는 朝鮮作家들을 정말 具體的으로 理解할機會를어들수잇게된感이잇다。

朝鮮第一의 全集

醫學博士 李甲洙
今番 貴社에서 現文壇十大權威의 最高傑作을 刊行하시난 壯擧에對하야 半島文學界를爲하야 祝賀하는 同時에 一般讀者에도 多大

朝鮮初有의 大豪華版

小說家 張赫宙
近間朝鮮文學의 出版이旺盛하와朝鮮文學發展에큰도움이되옵더니 이제貴社에서『朝鮮文人全集』을 刊行하게되매 實로 慶賀하여 마지안슴니다。選定된 作家諸氏가 大家的이고 裝幀이 또한 豪華版이니 市場에나 오는것을 기뻐합니다。

一大壯擧

梨專敎授 金尙鎔
斯界大家들이 力作을모아그들全貌를 보여수시라는그壯擧가 고맙습니다 이러한事業으로 우리文壇의 財貨는 더늘어 갈것입이다。



四回配本 『동백꽃』 故 金裕貞篇
十二月五日發賣!
大才作家金裕貞君의 全作品을 網羅한동백꽃은 滿天下의人氣를도두고잇다。

四六版六百餘頁의 豪華美本函入
金文字크로쓰裝 用紙純白最高洋紙
一冊定價 一圓五十錢 送料二十五錢
京城寬勳町一二一
三文社 (全集刊行部)
振替京城九七五六

小賣商에게는別無波紋 損害밋는곳은都賣商

綿製、毛製 最高價格決定과鍾路商街에의影響打診

地方小賣商은警戒가必要

십일일 조선물가위원회에서발표한 면제품과 모제품 삼십종육십오점 소매가격의 경성을표준으로한 최고판매가격은 이것이 전문위원회의 답신안을 그대로가결한것으로 경성시세에비하면 일이할이낫다는것인데 점점주의가 닥쳐오는 때를당하야 일반소비층을 위하야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지만 소매상에게주는 영향은 어떠며 또한 도매상에게는 어떤파문이미칠가 물표한 물품은 원칙이될가하는 문제에대한 종로상가의 의견을드르면 다음과갓다

물건은 아직넉넉하다고 볼수잇스니 문제업고 최근의 소매상은 시세변동이심하야「스톡」을 만히가지지안엇스므로 별반존해는 업슬것이다

다만 도매상은 십일일에발표한 최고판매가격보다 비싸게 사두엇든것도잇서서 한때자기네끼리 마시세를 올려 큰돈을잡드니 이번에는 손해를 볼것이며 대체로보아「스톡」을 만히가진측이 손해를 볼 것이다

또 한가지는 최고가격이 발표되여도 지방에 이것이 철저히 실시될때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걸림으로 도매상들이 여기에 손을빼칠지도몰라 지방소매상은 경계를요하다

暴虐한抱主【安北支社發】

지난십이일오전세시경 일곱명의 홍폭(紅錦)이 청[illegible]경찰서의 문을두다리며 구원을 애원한사건이 발생하엿다 사세한내용을듣건대 청수읍서정(西町)요정삼립(三笠)의 주인강본(岡本)○○은 당일오전두시경 술이대취하야동요정에잇는 창기일곱명에게대하야 함부로 폭행을하며 드디여 염산(鹽酸)으로 쏘으려하므로 도망나자들은 공포심을 이기지못하야그와가티 밤중에 경찰을차저서 구조를애원한것이라는바 동서에서는 방금이여자들을 보호하는일방 포주인전기강본을 호출취조중이라고한다

窃盜中毒【咸南支社】절도중독인가?형무소가 그리워던가?

강옥을나오는 그날로 형무소의 것을 도적하고다시 형무소로가게된사나이—해주군해남면 하량리(海州郡海南面[illegible])출생박문식(朴文植)(二○)은 절도죄로 평양형무소에서 일개월 징역을하고 십일일날출감하엿는바 나오는길로 형무소박게 노아둔 알미늄 [illegible]

阿片斷禁徹底 十年計畫遂行

【奉天】아편단금십개년계획을수립하고 온자(滿洲)정부를 목표로매진하고잇는 만주국정부에서는 흥분제[illegible]의이이하의 마약을 향유하는자에대해서도 마약취체법을 적용키위하야 마약법의개정을행할 모양이라고 한다 이는현재마약의인수가 곤난하기때문에 다수의인자는 선분의이이하의 마약을 향유한"몰다인"등의 마약법의 적용이업는와풍을 다량으로 긴용(喫飮)하는 경향이 잇슴에감하야 이동약품에대해서도 마약법으로써 단금성책의 철저를기하야 철저히적용하려는것이라고한다

新京名古屋호텔全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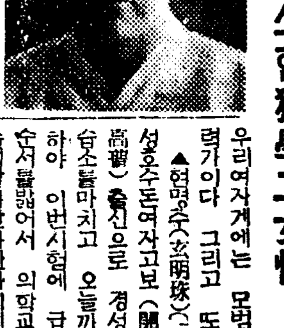
【新京十三日發同盟】십이일오후 십일시사십분경 신경삼립정(新京三笠町)에잇는 명고옥(名古屋)호텔삼층으로부터 불이나서 건평사백평 사층의 벽아건물을 전소하엿는데 부근에는 "야마도" 호텔, 대동공사등이 잇섯스나 소방대의 활동으로 십이일오전 영시경 진화하엿다 원인은 조사중이다

拳銃戰演出한 脫獄囚公判 各各十三年重刑求刑

【海州】복역중의 죄수인(囚人)이 간수의제복과 제모로변장하고 용흥창고(倉庫)속에서「모제식신연발피스톨」세자루와 실탄을 절취해가지고 그피스톨을 발사하면서 탈옥하야 추격하는간수대와 가두에서 권총전을 전개하야 세간에큰충동을 이르켯든「세칭해주형무소권총탈옥사건」의괴고 해주형무소(海州刑務所)수인 전과삼범 허형준(許亨俊)(二○) 동사범 신래원(申來元)(二○)등 두명에 대한 탈주공무집행방해급 강도살인미수(脫走公務執行妨害及强盜殺人未遂) 사건의 공판은 지난 십일일해주지방법원(海州地方法院)에서 대야(大野)재판장 심리 비가(比嘉)전중(田中)양판사의 배석 재등(齋藤)검사의 입회하에 개정되엿다 개정벽두에 대야재판장으로부터 사실심리에드러가자 피고들은 모두범죄사실을 시인하엿는데 입회검사로부터 고려할여지가업다는 준엄한 논고와 동시에 각각징역 십삼년을구형하엿는바 판결언도는 오는십팔일이라한다

젓멕이와싸우며 試驗工夫와싸우며

醫師試驗에파쓰한獨學二女性



금년시월중에 시험을치른 의사시험세삼부합격자는 십이일발표되엿는데 모두가 정식의학교를 못다닌독학자들로 그중에는 두청양바를만하지만 그중에는 두분의 여자가남자이상의 고심을다한 독학자가잇다

▲이인숙(李仁淑)(二七)여사는일찌기 원산누씨여고보(元山樓氏女高)출신으로 경성여자의학강습소를마친분인데 이미가정부인으로 두애기를기르면서 도서판생활을줄곳이 계속하는한편 대학병원산부인과와 암센내과에서 지도를바더오면서 이번에명예의 시험을무난히 급제하엿다 실로 우리여자게에는 모범될만한 노력가이다 그리고 또 한분은

▲현명주(玄明珠)(二五)양은 개성호수돈여자고보(開城好壽敦女高普)출신으로 경성여자의학강습소를마치고 오늘까지 독습을하야 이번시험에 급제하엿스며 순서를밟아서 의학교를 다녀도 줄어릴것일까한나이에 거이독습으로 성공한 재원이다 (사진은 이인숙여사와 현명주양)

芳香 ハイナシ 一吹必殺

移民團再移民

密山縣大炭田을開發하도록 燃料國策에順應讓步

【牧丹江十三日發同盟】목단강성밀산현천도단향(牧丹江省密山縣適道拔)부근에 매장량、약칠억돈의 대탄맥을 발견하고 연료국책에 개가를 올린진단전은 성사하(城子河)의 이민단에서문제를 이르켜 곤난중에잇섯는데 그후 이미단측이 전시체제하의 연료국책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민단전보를 이전하기로 결성하야 만주탄광(滿炭)측에서도 이민단측의 태도에 감사하고 이전비 이십오만원을 내기로 하엿다고한다

總督府圖書館 十月中閱覽狀況

시월중 총독부도서관의 도서열람상황을보면 현재 동도서관에는 장서도 정본(正本)십팔만 구백이십권 별본(別本) 사만 삼천삼백이십사권 합계 이십이만사천이백사십사권인데 시월한달동안의 열람자수는 유료 무료 합처서 도합 이만팔천오백십륙명으로 하루 평균 구백오십명을 넘고잇다 그중에서 만히읽기는 본관에서는 이학 의학 어학 문학이고 문고(文庫)에서는 어학 문학이 단연제일위를차지하고 잇는데 좌우간열람상황을보면 [illegible]

추위에 몰리는 行人들……【今日街上所見】

府內의道路鋪裝

道路總面積에三割박게施工되지안어 府土木課技術的研究에沒頭

근대도시의도로를포장하는것은 도시미관상뿐아니라 교통상 또는 보건위생상 절대로필요한일인데불구하고 경성의도로 포장은 선진도시에비하야 대단히 뒤떠러저잇는 현상이다.

경성부에서는 대정십오년봄부터 시내도로의 포장에 착수하야 금년삼월말현재 백유키로 사백메ー타 면적으로 백십구만칠천여 평방메ー타의 포장을마치엇는데 이것은 도로 총면적삼백오십유만 평방메ー타에비하야 겨우삼할 삼푼오리박게되지안허 근대도시에이서서 최소하도 포장보급률이되여잇는 유럽의 절반남직한 면적박게되지안는다 더욱 포장면적중 간할이상이 간이포장(簡易鋪裝)인 길한가운데 차도(車道)만 포장한것을 게산에너흐면 경성의 도로포장은 유치한기적이업다고 할수박게업다

경성의 도로포장이 이와가티 뒤떠러진 이유로는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의 차가육십도에 달하야 이것이 공사의신축한 진행을 기술적으로 대단곤난케하는 때문으로서 시공사(施工者)인 부토목과에서는 특이한 기상(氣象)에 합지하는 포장을 기술적으로 완성하야 포장면적을 늘리고저 연구를거듭하고잇다

寧邊邑小火【寧邊】

절기에 드러서 첫화재—지난십일일오후여덜시경 영변읍동부동(東部洞)승원여관(勝元旅館)안방오동에서 불이 이러나자 지경찰서원과 소방조원들의 노력으로 약이십분후에 진화되엿다는데 손해는약 오백원가량이라하며 기타사세한것은목하조사중이라고한다

落第生!

"第一區"鰮巾着網業者 區域撤廢를陳情

今年漁獲不良을理由로하야 三萬從業員生活에脅威

근년조선동해안의 건착망(巾着網)정어리어장은 비상한 활기를 띄워서 건착망어장권 하나만가지면 일약졸부가 되는것으로 일반이 생각하 까지 되여잇는터인데 이것도 정어리가제일잘 잡히는 함경북도의 제일구(第一區)의 어업자에 한한것이고 함남, 강원, 경북, 경남으로 뒤제이구의 어업자들은 사실상은 일반이알고잇는것와가티 풍성한 어의을 보지못하고잇는터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성어기때문에 제이구의 조선동해 온건착망어업수산조합(朝鮮東海鰮巾着網漁業水産組合) 소속의일백팔십명의 업자는 각각십여만원의투자를하고서도 그채산을마추지못하야 그들종업원 삼만명의가족까지처서 약십오만대중의 생활에 큰불안을 느끼기까지되엿다고한다 이리하야 이제이구의 건착망조합에서는 할록의제일구와의 어업구역을 철폐하여달라는운동을이르키어 그조합장좌좌목준삼랑(佐佐木準三郞)씨등 다섯명의대표자가 지난팔일부터 함남 강원 경북 경남의각도지사를방문하고 이동을신청하다음 총독부로 수적(麥積)식산국장에 이를 진정하고저 십이일 경성에 드러와서 방금출장중인 식산국장이 오는십일일귀임하는대로 진정을 하게될터인데 문제가 동해안어업대중에까지 미치는 중대한것이니만치 그추이가 자못주목을 끄은다

安柄玿氏의 超人的演奏

全樂壇、空前의歡呼속에 感激의再登壇

來十五日 午後七時開幕 於 府民館

入場料 一圓 二圓

本社主催

貧慾의養父

被害少女警察에呼訴

큰내 창신정(昌信町)삼백팔십번지 박영환(朴英煥)(五○)은지금으로부터 오년전 가른동리에 사는 안동수(安東洙)라는노인이가세가 몹시어려워하는것을기회로 당시열세살박게는 안된그의딸안순이(安順伊)(一八)를 수양녀로달라고 졸나서 순이를 다려다는 그동안 오년동안이나 작부로 손님을 대하게 하여 돈을 벌어 오던중요지음에 다시적기안순이가 매음부나 다름업시 드러온일에 살 수 업는 가 기생 사글 써 이보이자 과거오년간의 양육비로 유백이십원을 청구하고 이돈을 못해노켓스면 이제육년동안을내집에 놀러잇서야한다고 요구하여 십삼일 안순이는 생각다못해 동대문서에 이고야한양부를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엿다

水上偵察機 漢江着水

신항공사업사(新航空事業社)에서는 어군(魚群)탐험을하엿든바 동시에 각각상엿 십삼년도를구형하엿는바 관결언도는 오는십팔일이라한다

講演會同行歸路에 言爭타親友刺殺

【木浦】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의의우감성은 사랑하는 동무까지하고 생시켜섯다 목포경찰서의 포경부(浦京町)에서 유숙하는 선원모(月野某)와 부천모(富川某)는 피차 사이조흔 동무로서 지난열흘날밤에 산수소학교(山手小學校)에서 개최한시국강연을드르러 가치나갓다가 도라오는길에 무슨일인지 각사이론을고집하야 언쟁을하면서 밤한시반경에 전기하숙집간까지 와서 격분한부천모는 부엌에잇든 식도를들고나와 월야모의 가슴을찔러 직사케하고 그길로 목포서에자수하엿다는데 어떠한원인으로 친우를 살해햇는지 상세내용은 불명하다한다

箭串橋에僵死

십이일 오전여덜시쯤해서 부내 살고지다리(箭串橋)옆 저방우에서 강시(僵屍)하나가 발견되엿다 소관동대문서에서 조사한결과 부내창신정(昌信町)유백이십이번지사는오씨만(吳氏萬)(一二)이라는가난한집아이로서 독섬에 무이사주스러 나갓다가 배가고파서 얼어죽은것으로 판명되엿다

大造園計畫 第一江山牧丹峰

【平壤支社發】금수강산(錦繡江山) 평양 모란봉(牧丹峰)공원정도를 인공미를가하야 좀더 더말대하게만드러 세계적으로도 손색이업시 만 드러보자는 그소래는 이미놉흔바 금번평양부 시가지계획(市街地計畫係)에서「대공원모란봉제조」를 목표로 본격적연구에 착수하게되엿다

계획의설계는 지금으로부터약 이십년전 모외국인이 모란봉공원을보고 개조론을 주창한후설계도까지 그려주고 간것이잇는 그것과 수년전에 래양하엿든일본조원계(造園界)의권위자 상원(上原)씨의 설계를참작하야 이것을참고로 설계하야 응장구향한모란봉공원의 대자연미에 인공을 가하야 명실함께 대공원을 만드리다는데 지나서변으로 가령 착공이 늣는다고 하여도 사변이못나면 곳착공할만큼 준비를 하여두리라한다

肺結核、花柳病의 豫防展覽會開催

【興南】흥남기병사가 다지방에비하야 훨신만키로 유명한공장지대 흥남에 적절한 행사한가지—함남도 위생과결핵예방협회(咸南道衞生課結核豫防協會)주최와 함남위생회(咸南衞生會)후원으로 오는십일일부터 십사일까지 삼일간 흥남경찰서 회의실을빌려 폐결핵에 대한것 백여점 화류병에대한것 이십여점의 모형품과 그의예방에관한 그림다수를 드타미식으로 신렬하여 흥미잇게구경하며 두가지 무서운 병에 대한 지식을 보급시키리라고 한다

内地各地에도 寒波襲來

中部地方廿數個所에初雪

【東京電話同盟】십이일내지에는 금화(寒波)가 습래하야 저기압이나타나서 추전(秋田)근해 금화산(金華山)근해의 기압의경사가 급히되엿스므로 동부지방에는 북쪽으로 조선황 해(黃海)지나해(支那海)에걸처서계절풍(季節風)이 「시베리아」의 한파를 보내엿으로 본격적 겨울의기압배치에는 들어가지 안헛다 따라서 이추위는 하루시 기온은 칠도사가되여 예년보다 오도일이 나서서 거리에는 외투들이 보이게되엿다 이추위는 몽고에 칠백팔십촉 넘보다 빠르게다고 금년추위는 예년보다 대체로 동경기상대(中央氣象臺)에서 말한다 「미리」라는 우세한 고기압이

스포ー츠

學實卓球對抗

조선학생탁구연맹주최의 제십사회 실업단대학생의 대항탁구대회는 십이일 오전십시반부터 청진정경성보육 학교체육관에서 열리엿는데 우승은 실업단이 차지하엿고 학생편에서 분전분투한 경기회를하엿스며 후원이 잇는바 실업단은 사년간의 실력을보인 적과 승리를 보인 것이다 [illegible]

【學生軍】?……?【實業團】

◇第一라운드

金彦八(醫專)2……1 李尚烈(遞信)

李顯浩(醫專)2……1 李成鐵(總府)

朴龍稙(醫專)2……0 金相鎬(總府)

高康淵(普專)2……0 李順炅(普專)

金彦八(醫專)1……2 朴在穗(總府)

周錫澤(普專)2……1 李東煥(總府)

朴春植(法專)2……1 金相鎬(專賣)

李泉煥(普專)2……1 潘龍煥(總府)

李康浩(普專)?……? 文龍湊(遞信)

近 藤(高商)?……? 李在雨(總府)

中等庭球送別戰

제일회중등학교졸업생대 재학생송별정구대회는 십삼일오후영시 부터 태평통경성부청코ー트에서 열렷는바 이날오후까지의 전적은 다음과갓다

【卒業生】?……?【在學生】

李春幸 金在鎬 0……4 吉田 妹尾

趙益煥 尹光欽 4……0 朴永哲 崔達熙

金南斗 金鍾培 3……4 金在德 張在福

鄭基韶 孔學喜 1……4 孫水斗 任勝宰

金成學 申東一 4……4 閔丙基 田容國

李春幸 金在鎬 4……4 張錫元 洪炳瑞

◇第二라운드

趙益煥 尹光欽 ?……? 吉田 妹尾

明日의運動

▲籠球＝朝鮮中央基督教靑年會主催第十一回中等學校籠球리ー그 第三日…養正對普成(午後六時半) 京城對道商(午後七時廿分) 普成對京師(午後八時十分)以上全部鍾路靑年會室內코ー트(場內整理費十錢均一)◇朝鮮學生籠球聯盟戰 第七日…世專對佛專午後四時 淸涼里大豫코ー트(觀覽無料)

色鉛筆

한사흘칩고 한나흘동안 따뜻해지는 삼한사온(三寒四溫)의 조선의겨울도 이제부터 시작되는가보다 ▲가튼서도의 추이라고해도 연일계속된다면 견디기어려울것이 며칠만지나면 조금따스해저서 ▲양지에는 볏살이 정답게쪼이면 방구석에들어 안저서 움쭉도하든 어린이들도 바깥구경을 하게되는「사온」▲겨울이 칩다칩다해도 그래도견딜만한것은 결국이땅의내고향기후

暦

▲十一月十四日(月曜)陰九月廿三日▲干支 庚戌▲日出 午前七時十一分▲日南中 午後零時十八分▲日入 午後五時廿五分▲晝間十時十四分▲月入 午後零時卅七分▲滿潮(仁川) 午前九時廿五分 午後十時十分

天氣豫報

槪況 高氣壓은 漸次로移動하얏지만 依然七八二耗의優勢를보이며 蒙古에서 일로부터 朝鮮과滿洲를거처서 本邦에擴大되여 西高東低의 冬氣氣壓配置의 標準型이 되여잇기때문에 湖南地方은 흐리고그 外의 鮮滿은 天氣가조흐며 昨日來季節風도잣다 內地中部에는 降雨、雪이잇고 其他는晴

豫報 今夜는晴、明日은 晴 一時曇

昨日最高 一度八

同 最低 零下六度五

十三日朝最低 零下二度八

同 正午 一度一

日本精神昂揚映畫、本年度問題の超大作!

續水戶黃門廻國記

邦畫始まつて以來の百万圓映畫!

黃金座

封切迫る

11月15日ヨリ公演

起ち上る蒙古

伊勢野重任 原作 / 平和映畫社製作

文部省推薦

蓮沼部隊後援

實演 竹本スヰングバンド

東寶少女歌劇名指揮者 竹本喜三氏と其のオーケストラ / 香梅波瑠・東海林雪子・美香タカエ外 / コロムビアレコード歌手數名出演

五〇セン均一

暖房完備

東寶映畫 青空二人組

コロムビア映畫 恨なりき情怨

同時封切

早朝割引 三十錢均一

(但開映時間マデ)

若劇

KAZEPIRIN

RPT

カゼピリン

解熱完全

熱 風

感冒・頭痛 痰咳・熱

惡性感氣 神奇하게 擊退

定價 三十錢 壹圓

本舖 樂天堂製藥株式會社

회충구제량약

岩崎大海堂 セメン菓子 (珊篤尼涅菓子)

산독니네

類似品 잇스니 商印에 注意

무서운蛔虫卵을 驅除합시다! 蛔虫卵은 每日食用하는 野菜김치等에附着하야 人體內에드러가서 體內에生長하면서 發熱腹痛嘔吐貧血夜泣等其他 各種病의 原因이됩니다 特히 小兒는 蛔虫에 걸리기쉬운故로 每週日曜日에는 예전부터 信用잇고 잘듯는 岩印岩崎大海堂세멘菓子를 服用시켜서 이무서운 蛔虫을 驅除하고 애기네를 健康하게 길러주십시요

本舖 大阪天王寺 合名會社 岩崎大海堂

工業案內

一切手送하시면小資本大成功에 關한化粧品一切洗濯石鹼各種日用品等十數種이能히製造할수잇는工業案內書를送呈함 京城府長沙町二九 泰昌工業所 (原料商)

코나쁜사람

自宅에서할수잇는治療와其方法

鼻病手術不要

思考力이 漸漸衰退한다. 右의症狀의어느가 잇든지 卽時와 맑은 鼻가 막히고 머리가 무겁고 鼻汁나오고 기침나고 日常머리가 아프고 鼻腔中에서 냄새가나고 코와코 메음이 나는것 [illegible]

東京鼻科藥房研究所

埼玉縣大宮町(氷川公園)

먼저健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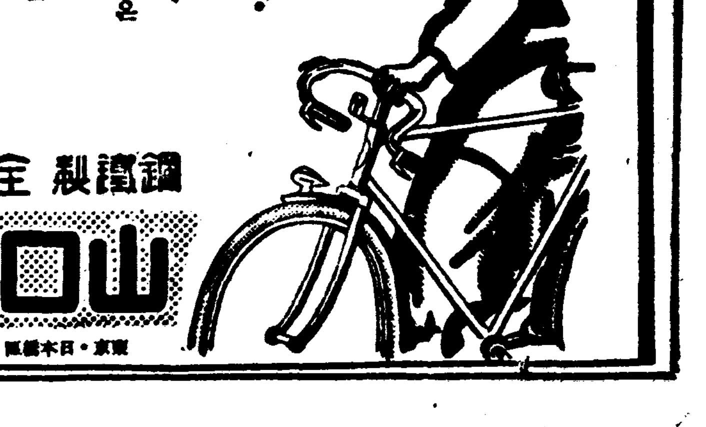
厚生運動에는勿論 大陸으로躍進하려는때 지금이야말로活動의秋가왓다

마루와이輕快車를 乘하십시요

紳士用 (通勤通學) 한들上向型・一文字型

스포ー츠用(運動用) 한들上向型・下向型

鋼鐵製 全國廻轉部防水式



山口の自轉車

東京・日本橋區・小傳馬町 山口自轉車工場販賣部

本報江陵支局電話開通 江陵 二一六番

(時價表進呈)

星 標苦草製粉 丸星商會

釜山府瀛州町市場前 第一工場 第二工場

電話 釜山一九二二・四八番 振替 釜山一二二五番

懸案中의 大淸津建設案

收用人口百七萬의 朝鮮一都市計畫

現行計畫案과 擴張案合처서 明秋十月에 正式認可

【咸北支社發】 …ㄴ총독부로부터 청진부에보내왓든 이기청진시가지계획령(第一期淸津市街地計畫令)의 자문안(諮問案)은 그후 청진부에서 극력 의 수정등의를보지 수정안(修正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든바 이래 일년을 경과해도 소식이 망연하야 수정안은마치내 유산되고마는것으로·해석되고잇섯다 이제야 청진부당국은 차라리 총독부측의 자문안에 그주시찬동하야 사업을 진행시키기만못하다하야 새삼스럽게 실기의후회를하고잇는데이제는 할수업시명년도로 몰리게되얏다 명년도라해도 부회의원선거(府議員選擧) 때문에 여름까지는 가망이 업스므로 보통이 구월이나 시월을 기다려 오려논안을 일사천리로 해결하기로하고 제반준비를 독촉하고잇서 늦어도 명년 시월까지는 대청진건설의 초석(礎石)이 완성히 서게될것인데 막대한 청진의 도시계획은 불원한 장래에 경성에 버금할만큼한 대도시를 건설하는것이므로 그내용이 주목을 끌고잇다 이제 명년에 인가를 보게될 총독부원안에 의하면 대청진에 새로히 포함될새구역은 현재의 계획실시 구역이외에 총면적(總面積) 사천일백만평(坪)의 광범한 구역으로 그주거주가능한곳이 이천삼백삼십만평에달한다 여기 수용할 계획인구(計畫人口)가 칠십칠만명인데 이계산은 한사람의주거삼십평을 잡은것이므로 실지는 팔십이상의 인구를 수용할수잇는것이다 이원안을 지연시키게한 원인은 시가지계획구역과 행정구역(行政區域)을 별개로하려는 총부의원안에대하야 청진부에서는 상그구역을 가치해달라는데 잇섯스므로 수정안을 취소하므로써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것으로보인다 이제 제일차의계획령――즉현행중의 계획안――파 아울러 새로운확장계획령에 의하면 무려 백칠만의 인구를 포용할 조선제일의 대도시계획안이된다 금후사십년을 지나면 이가른꿈(?)이눈아페 뚜렷이 나타날모양이다

豊川椒島民過冬할

食糧問題遂解決

漁業組合理事努力으로

【豊川】 황해도풍천군초도에 호열자(虎列刺)가 발생되자 황해도령(道令)으로 황해도일대에서 어로금지(漁撈禁止)를당하여 어업에 막대한손해를보고 더욱과동식량(過冬食糧)문제에 전전긍긍하고잇던 황해도풍천초도(椒島)어업자 다대수를구제코저 그섬어업조합(漁業組合)과 군도당국의 노력으로 일시저리로대부할 금액을 차입(借入)하여 그자입금으로써 조합원에게 식량매입금으로 대부하게되여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가정식구(食口)수등을 세밀히조사하고 소요식량(所用食糧)의 수량을 계산하여 현금대부형식(現金貸付形式)으로 화산케하여 전조합원의 겨울동안생활을 보장케하는동시 조합원가자가 식량을사려내왕케되면 공연한비용과 또는 시세관계으로 매입할수업다는견지로써 조합이사 강주경(組合理事康周卿)씨가 팔일 풍천에 출장하여 유내 미곡상(米穀商)들에게 입찰(入札)을 시겻든데 위선 백미이백가마니를 입찰시겻스나 명춘해빙기(解氷期)까지는 금번에할시긴 이백가마니를 제하고도 오백가마니를 구입하여야 되겟다고하다 따라조도어업자들의 전전긍긍한 식량문제도 해결되엿다고한다

興南에 火災

【興南】 십이일오전 흥남읍천기리(天機里)읍영(邑營)시장내점포 최헌렬(崔憲烈)상점에서 발화하여 때마침맹렬히부는바람에 손대일여지업시 동상점을 삽시간에전소시키고 이웃집에 연소할듯하엿스나 소방조의 필사적활동으로 동상점의 바른인접한 태성상사회사(泰盛商事) 출장소를 반소시키고 진화하엿다는바 손해는 최헌렬상점에서 약이만원가량 태성회사출장소에서 약천원정도인데 화인에대하여는 아직자세히알수업서 홍남서에서는 엄밀히 조사중이라한다

照明彈

○ 얼마전 청주읍(淸州邑)본정 모여관에 투숙하고잇든손이 그여관하녀를 폭행하야 한때큰화제를 던저주더니。

○ 이번에는 모여관주인이 자기여관에 하숙하고잇는 여손님두명을 폭행한사실이 발각되다。

○ 첫번사실도 인도상 용서할수업거니와 둘째번사실은 더욱용서할수업다。

○ 피해여성두명은 급기야 고소를제기한다는데 세상이 이래서야 여자로서 어떠케맘노코 하숙할수잇스랴!。

○ 사직의재단도 응당잇스려니와 일반사회에서도 이러한 악덕여관주에게는 대철추를가할일(淸州)

工費三十萬圓으로

淸津水産校着工

明年八月에竣工豫定

【咸北支社發】 청진수산학교(淸津水産學校)는 수성천배수로(輸城川排水路)부근에 건축키로되엿는데 동교는 보통을벽돌교실합하야 오동(五棟) 총건평일천삼백평 총공비는 삼십만원예산이다 십일일공사입찰(公入札)을한후 곳 착공하리라하며 명년팔월까지는 준공할예정이다

紅峴素人劇開催

【紅峴】 오는십사, 십오일 이틀동안옥기하야 황해도홍현시(黃海道紅峴市)에서는 홍현체육회주최(紅峴體育會主催)와 본보홍현분국의후원으로 소인극(素人劇)을 공연하리라는데 남녀회원배우삼십여명의 총출연공개를 하리라는바 특히 당지홍현연봉루(紅峴演鳳樓)기생들도 총출연한다고하는데 이날은 대성황을 예측한다고하다 그리고 상연할예제는 다음과가다

十四日푸로
父子天倫 全三幕 幕間 喜劇
一碗
十五日푸로
女子의變心 全一幕 幕間 波浪境 全二幕 喜劇一幕

淸津局急設電話 十九日遂着工

【咸北支社發】 금년가을에 가설예정이던 일백구십이개나 되는 청진국의 급설전화(淸津局急設電話)는 사변관계로인하야 재료결핍으로 지연되어오던 터이던바 오는십구일부터 가설에착수키로되여 금년내로는 전부 개통할작정이라한다

大邱府新編入地帶

農本? 工業本位?

三出張所와現地實情調査코저 記者俱樂部一行視察

【慶北支社發】 지난시월일일 행정구역확장이래 대구부에서는 신편입지대인 전수성(壽城)면 성북(城北)면 달서(達西)면등지약 륙천오천여정보의 대농경지대에 금후여하한 지도를할것인가하는것은 소위장래『대대구』건설을압두고 부당국자의 취할방침에대하야 비상한 주목을하여왓스며 부당국에서도 종래달성(達城)군지도미테 잇던때와가티 농본(農本)일로로 나갈것인가 혹은동지대가 모두 교외로써 금호강(琴湖江)혹은 신천(新川)접근지대인만치 수리의 불편한 대구로서는 절호의 공장지대가 될것이라하야 장차 동지대를 공장지대로 전환시킬것인가? 적지안흔 연구가 되어오든 터인데 이와가튼 견지에서 부정의 진전에 참획하려는 대구부정 기사구락부(大邱府政記者俱樂部)에서는 지난 십이일오후한시부터 전연(田淵)부내무과장의 안내로 동부(壽城)북부(城北) 서부(達西) 삼출장소를 시찰하고 신편입지대일대의 장래발전에대한 조사와 시찰을하엿는데 그결과는 적지안흔 참고가되리라고한다 시찰참가자는 다음과갓다

朝鮮民報 石 鐵鋒
大邱日報 神田
大每 櫻井
大朝 河村
京日 平田
朝鮮新聞 帖佐
釜山日報 原田
朝鮮時報 上田
慶北公論 韓 應烈
朝鮮日報 李 東雨
府內務課長 田淵

라디오프로그람

十三日(日曜)

◇午後六時 日滿支親善交驩放送 (東京)一、인사 『滿洲와支那동무들에게』 日本兒童代表男女一名 一、童謠 1、愛國行進曲 2、日本어린이의노래 余鈴어린이會 伴奏 東京放送管絃樂團
(新京)(北京)一、奏樂『快樂歌』 決文第一小學校節奏樂隊 一、談話 上堂子小學校 日滿通譯 獨唱『小學生活』 育小學校 徐 貞孝 許 世貴 一、인사 四、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老 相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二〇分 講演『國民精神作興週間第七日―國民精神作興詔書를當하야時局을再認識하라』 政務總監 大野綠一郎 (譯) 田中德太郎
◇同八時 時調 一、平時調 玄 石年 二、辭說時調
◇同八時一五分 라디오콩트『再會』―金永壽作 申 銀元 金 浩
◇同八時四五分 民謠合唱(京城) 一、花開春盛 二、春悲春興 三、興打鈴 四、박아打鈴 五、아리랑 梨花女專朝鮮民謠研究部員 伴奏 申 載德 指揮 李 鐘泰
◇同八時四五分 室內樂(平壤)
◇同九時五分 唱劇調 一、短歌 一、唱劇調 與夫歌 南原山城 朴 初月 鼓手 韓 成俊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名) 맨돌린
◇同一時 (城) 將士慰問
◇同六時 日滿支親善
◇同六時一五分 (城) 講演
◇同七時二〇分 (豐北) 歌謠曲
◇同七時五〇分 (東) 文化演藝
◇同八時五〇分(東) 風景曲

十四日(月曜)

◇午前七時五〇分 皇居遙拜 (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五一分 (東) 라디오體操(同)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製法『松茸泥飩』 日用品時勢
◇正午(東) 時報
◇午後零時五分 新民謠 (레코―드)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石炭이야기』 金 容瓘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하―모니카合奏 一、雙頭의수리미테……와그너―作 二、小夜曲…드릐고作曲 三、… 四、… 五、… 六、行進曲… 京城中學校하―모니카班 指揮 …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週間情報
◇同七時 뉴―스 就職案內 氣象通報
◇同七時三〇分 講演『東洋의人物과思想(一)』 柳 子厚
◇同八時 (東) 管絃樂(現代日本) 『秋吉元作品集(第十一回)』 一、古典組曲 作品四 二、 …
◇同八時三〇分 西洋歌謠
◇同九時 野談
◇同九時三〇分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番組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 宋 今

紅峴 素人劇의밤

▲時日 十一月十四、十五兩日間
▲場所 紅峴米市假設劇場
▲主催 紅峴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紅峴分局

長篇小說 林巨正【174】

洪碧初 作 金熊超 畵

평산쌈 (十五)

「이야기나 좀 더하다가 가지 일어섭시다」

서림이가 붓드는것은 차치하고

「더앉저 놀다가게」

한온이도 붓들던더러 리춘동이 당자까지

「여기잇다가 주인하구 가치가서 상청에를 다녀야겟네」

하고 일어나려 들지아니하야 김산이는 ‥‥더 가잔말을못하고 서림이와 리춘동이의 수작을 안저들엇다 서림이가 영웅논란을 끄내고 당세영웅을 리춘동이에게 물으니 리춘동이는 청석골

「우리가튼 무식한놈이 영웅을 알수잇소」

하고 겸사한뒤 다시 생각하고

「여기 임대장가튼이가 당세영웅 아니겟소?」

하고 되물엇다

「우리대장은 아직 말할구 달온영웅부터 처보지우」

「달온영웅은 난 몰으겟소」

「공연한말슴 마시우」

「아니요 참말이요」

「박연중이를 엇재 치지 안소 나더러 당세영웅을 치라면 그를 첫손까락에 꼽겟는데」

「한번 만나보지두못하구 그가 영웅인지 아닌지 엇지 아시오」

「만나보지못하구 말만 들어두 그건 압주 잇지요 기묘년에 남곤(南袞)남정승이 박연중이란 일홈을 들으면 곳 떨엇답되다 일인지하(一人之下)요 만인지상(萬人之上)인 일국정승이 겁을낼사람이면 그게 무서운인물 아니겟소 또 그가 옥사녀에 사(赦)를 박구두 이내 세상에 나서지안헛답듸다 여느사람 가트면 세상에 나가서 펄펄뛰구 몰아다녓슬것인데 산중에 들어안저서 사십여년동안 자행자지(自行自止)하구 지냇스니 그게 여간 동은이돌루 될일이요 그보다두 대당의 괴수노릇하든 사람이 아무 뒤탈업시 발때구 나와서 여생을 안온하게 보내니 그런 히한한 인물이 이세상에 또 어듸잇겟소 그래서 나는 그를 당세의 제일영웅으루 아우」

서림이가 박연중이를 당세영웅으로 안다는것은 말쨋한 입에발린 말이고 그 입에발린말은 분명히 리춘동이의 속을뽑아보랴는것이라 김산이가 서림이를 말못하도록 면박주고시픈것을 억지로 참고잇다가 서림이의 말이 못나기가 무섭게곳

「박연중이가 서종사를 뵈수루 치부하구 젊지부심하더라구 지금말을 들으면 술사주구 떡사주겟소」

「어제밤에 심어지한말을 가지하고 비꼬아서 말하니 구 나를 오금을 박는모양이요」

하고 서림이가 조치안흔 내색을 보이엇다

「내가 서종사를 오금박을 주제나 되면 제법이게요 그러치만 지금하신말슴은 잘 고지가 들리지 안소」

「무어시 고지들리지 안는단말이요」

「박연중이가 운달산에서 쪼겨난것을 히한한인물의 일루 말숨하니 그럴것가트면 서종사는 왜 여기서 나가서 안온하게 지낼생각을 안하시우」

「내가 그런생각을 하는지 안하는지 어찌 아우」

「그런생각을 안하시기에 안나가시는것 아니요」

김산이가 서림이와 말을 다투러 대들때 꺽정이가 의론할일이 잇다고 서림이를 불러보내서 서림이는 가소롭게 여기는 웃음을 김산이 얼굴에 던지고 큰기침까지하고 일어섯다 서림이 간뒤에 김산이가 리춘동이를 보고

「우리중에 표리부동(表裏不同)한사람이 꼭 한사람잇네 그사람이 곳 지금 와다간사람일세 그사람하구 말할때는 조심하게」

하고 당부하는데 한온이가 서림이의 흉을 씨서덥프이

「지모(智謀)는 비상한 사람이야」

하고 말하엿다

「지모가 비상하니까 교사(狡詐)두 비상하거든」

「하여튼 사람이 미덥지는못하진」

「여간 미덥지못하기만해 그런사람 미덧다간 큰코 깨네」

「사네두 팔푸령의본을 뜨네그려」

한온이 말끗헤 리춘동이가

「팔푸령의 본이란니」

하고 붉어서 김산이가 한온이말은 젓어노코

「팔푸령이 사람은 좀 무식스럽지만 우리중의 제일 직장일세 그래서 서종사하구 아주 앙숙이지 대장께 놀리지 안흐면 날마다 찻을테세 날마다가 무어야 하루 열두번 찻우지」

하고 리춘동이의말을 대답한뒤 다시 서림이의 소행을 들처어 이야기하기시작할때 바바게 누가 기침소리를 내어서 김산이는 이야기를 끈치고 한온이는 밧문을 열어보앗다

간질 『경련놓고칩시다』
癲病說明書 (誕生壽) 無代進呈
本病은 어데서나突然경련을 이르키고 卒倒하야 實로危險한病인故로 家庭的療法으로 고치지안으면 안됩니다 이實驗療法에 永年夜鋼한 나는病者를 救하기爲하야 經驗을 다한百貫療法本을 發行하고 無代進呈하며 … 和歌山市片岡町 … 富吉製作에게至急葉書로申込하시오

ツバメ寫眞機 無代進呈
實物寫眞機로써 宣傳코저 … ツバメ寫眞機商會

漢藥萬能時代가왓다 此時季를勿失하라
그러면누구가漢藥을製藥하느냐 漢藥種商이아니고는製藥치못한다 漢藥種商이되려면如何히할가 本社 漢藥種商講義錄을 講讀하면一日讀하야도希望한바藥種商이된다 躊躇하면失敗이고勇氣는成功이다 一冊全集定價四圓을三圓에提供(送料實費)
京城府茶房町一七 朝鮮藥業究研社 二二八九番

株券紛失無效公告
… 株式會社 廣信商會

朝報案內

佐伯家具店
弊店은今般本町二丁目派出所앞으로移轉하엿사오니 … 電本三二七四

印刷職工大募集
一、印刷經驗잇는男子 十六歲以上二十名
履歷書持參至急來談하시오
平壤印刷業組合 事務所 平壤府新陽里一五〇 紀新社內

本社 廣告部 電本四三一〇番 販賣部 電本六三八一〇番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入院室完備) 京城府鍾路三丁目十六 電話光化門六八五番

明治座 十四日より廿日まで
西海岸の娘達 佐々木康監督 佐分利信 川崎弘子 德大寺伸 三原純 春日英子 槇大佐子 若水絹子
映畫月報第三輯 防諜思想強調映畫 スパイは君だ!
UNITED ARTISTS 暖房完備
木に攀る女 ジョン・ブライストン監督 ミリアム・ホプキンス ジョエル・マックリー 主演

新吹込・十二月中全國發賣

004099

豪華태평레코―드의雄飛

半島歌壇을휩쓰른世紀의寵兒・一流名歌手總登場

無敵專屬
蔡奎燁
朴響林
南一鷰
宋基玉

壯하다 慌慨하다 어마어마하고痛快하다 流行歌의新歷史는여기서생긴다 이歌手陣、이文藝部、이營業、可히 斯道에覇임을 壯談하고도남는다 우리는 무릅을치고자랑한다 萬年歌手、奎君의再出發 一九三八年度의半島歌壇을 휩쓰른世紀의寵姬朴響林、南一鷰、그리고 新進名花 宋基玉孃!―이만하면 망집고 헴치기다 우리들은 眞正한우리流行歌壇再建을위한情熱의불덩어리다 第一回發賣를 손곱아기대리시라!― 拍手를보내시라

우리들의決心

蔡奎燁 『나는노래에殉死하리다 노래는 나의武器이며 名譽다 나의노래에對한 참된 熱情피―工夫는 인제부터다 태평레코―드를 通하야 나는 그것을 表現할決心이다』

朴響林 『太平은 나의 옛집이다 靑春劇場을 내노흔 나의親庭이다 다시도라왓다 나는 내精誠을 뭉치고 내才能을 가다듬어 우리 太平을 꼿피울決心이다』

南一鷰 『고향에 京釜線을부른 … 옛집이다 설마내가 … 아는이도 잇슬가 나는 決心하다 우리 太平의 大成을위하야 한바탕서둘너보겟다』

宋基玉

南一鷰

朴響林

蔡奎燁

長篇小說

薄命 (140)

韓龍雲 作 鄭玄雄 畫

결혼 卅七

『순영이 손님오섯다』하고 드러오는 산월이 소리에

『어떤 손님?』

순영이는 짐짓 무르면서 이러선다

『어꾸제 밤에 오섯던 손님 말이야』

『응 그래』

순영이는 나가서 대철이를 마지면서

『선생님 오섯서요 그러찮허도……』

하더니 다른사람들을 도라보면서 말을 마랄으지 안코서 딴방으로 인도하야 드러갓다

『저는 조금잇다가 가서 뵈오라고 하엿더니 이러케 오섯구니요』

순영이는 웃으면서 대철이기색을 본다

『일전에 하두 감사하게 다녀가서 그런말슴도 하고 일간에 떠나야 할 사정이 잇서서 작별겸 두루두루 왓습니다』

대철이는 웃지도 안는다

『천만에 감사한게 뭐야요 일전에 실례만 만히 하얏는데 그런데 웨그러케 쉽게 떠나서요?』

순영이 얼굴에는 걱정스런비치 떠돈다

『객지에 왓스니까 또 가야지오』

『웨 무슨급한일이 게서요?』

『급한일이라고 할것도 업지마는 그런사정이 잇서서 그럽니다』

『무슨 사정이야요?』

『그것 뭐 아실것 업습니다』

『제가 알어서 못쓸일 인가요?』

『못쓸것은 업지마는 그까지구구한사정을 알어서 무얼하시겟소 나로서는 말슴하고십지 안습니다』

『그럼 이번에 가시면 언제쯤 또 오서요?』

『모르지오 언제쯤이나 또 오게 될른지』

『그러서요?』

순영이는 대철이가 떠나게되면서도 자기에게 대하야 별로 관심이 업는것처럼 냉담하게 말하는것이 섭섭하야서 얼굴에화기가 돌지 아니하얏다 순영이 기색을 살피던 대철이는 자리를 고치면서

『그런데 나는 떠나라고 하는데 적지안흔 고통이 잇는데요』

『웨 무슨 고통이서요?』

순영이는 의례히 돈에 대한말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얏다

『그것다 제가 사서하는 고통이니까 할수업지오』

『글세 무슨고통 이서요 그것도 말슴하실수 업서요?』

『아니오 말을 못할것이야 업지마는……』

『그럼 또 뭐야요?』

『순영씨에게 모욕이 될까버서 말슴하기가 어려운데요』

『무슨일 이기에 제게 모욕이 돼요?』

『그럼 말슴해도 용서 하시겟서요?』

『용서가 다 뭐야요 아무 말슴이던지 하서요 선생님의말슴은 무엇이던지 제가 나쁘게 생각할것은 하나도 업슬게니요』

『나는 분들을 떠나야 될 사정이 잇스면서도 어쩌지 떠나기가 실흔 고통이 잇습니다』

대철이는 이상한 눈으로 순영이를 뚜러저라하고 본다

『무슨 사정이 그런사정이 게서요?』

순영이는 칠분이나 짐작이 되야서 마음이 가려웟다

『순영씨를 작별하고 떠날수가 업다는 말슴입니다 인제 아시겟서요?』

대철이는 오히려 눈을 다른데로 돌리지 안는다

『애그 선생님두 별 그러서요? 저가튼것을 공연히 그러시진』

순영이는 웃음 목성이가 떠어서 한손으로 입을 가리고 부드러운 눈으로 강하게 대철이를 본다

『그러치오 순영씨의 마음을 미루어 본다면 그러케도 말슴할지 모르지오 그러나 나로서는 이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입니다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이길수가 잇다면 어세상에서 나는 제일 강한자가 될것이오 따라서 제일 약한자가 될것입니다』

名畫에숨은로맨스 ❶

"落花流水"흘르는물에 아리랑타령도흘러가고 사랑을차저간"세동무" 鐘소리듯고넷생각한다

第一話 아리랑(前篇) 八百名엑스트라의 泥醉亂舞의曲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넘어간다 靑天하늘엔 별도만코 여내야가슴엔 설움도만타 이노래가 全朝鮮의 방방곡곡을 흘르던때는 只今부터 十三년전일이다 아리랑이라면곳 羅雲奎씨를 생각하게되고 羅雲奎氏라면 곳아리랑을 聯想케된다 哲學을 硏究하다가미친 英鎭(羅雲奎扮)이는 시골서 아리랑만부르고 누이동생英姬(申一仙扮)는 오빠의친구 尹鉉求(南宮雲扮)와 사랑을 속사기다가 오늘은 愛人이 서울로 가는날 鉉九는『네모곤들흐』가 가되고 英姬는『카쥬-샤』가 되어 두사람의 사랑의 속사김은 끄칠줄을모른다

○

鉉九가 서울간후 英姬의시골은 풍년이드러서 한바탕農樂이 버러지게되엿다 이撮影을하기위하야 東大門밧게다가 엑스트라 千名을 募集햇드니 即時로 應募者가 八百名을 突破햇다 이만흔사람을 그대로 쓸수가업서서 六隊로나누아 가지고 隊先주우니 술한番식 대접한다고 해서 술판이벌어젓는데 술이度가지나치니 그자리에서 싸움이벌어지고 한패는 도라안저 얘기판이벌어지고 一部의老장패들은 술국을퍼먹느라고 정신을일헛스니 撮影이아니고 이건 八百名 큰잔치가버러진셈임 아무리 소리를치고야단을 해도 드른척도안코 저이들끼리 난장이라…드디어하는수업시 그만 술국속에다가 모래를퍼너헛겟다 그래도 술국그릇에 매여달리는慘狀 마지막엔하는수업시 團成社 사람들이나와서 꼬깔을 쓰고

第二話 세동무 大膽한實演인데 負傷이원일인가?

『세동무』라면 누구나 생각나는노래가잇겟다 지나간그옛날에 푸른잔디에 꿈을꾸던그時節이언제이던가 이映畫題名은元來는『三乞人』이엿던것이 題名이 適當치못하다고해서 드디어 세동무로 고처젓던것이다 여기숨은一大椿事가잇다 그대만하더래도 트릭크의使用法을 잘몰랏던時節이라 마침이映畫에는 格鬪장면이잇섯다 場所는市內 어느新聞社二層에서 싸움이버러젓는데 그야말로 한대마자서 二層에서 보기조케 녀아웃되는場面이다 그러나 누구나 이二層에서 떠러질라는사람이 잇슬理잇스라? 그런데그때 金八枝란 只今은 故人이된作者가잇섯는데 여페서들 그까짓걸 못뒤여내려!하고 옥바질르는통에 자! 大格鬪끄테 二層에서큰 마음먹고떠러지자 아래서는모두 두부木포대기를들고섯는데 떠러지자- 찌-「소리가 나면서 포대기가찌저지자 사람은땅우에 랏쓰러지고말엇다 負傷! 一大不祥事? 이래가지고는 病院에 入院하야治療를바덧다 그런데 이金八枝란는이가 主演俳優인 金某孃에게 짝사랑에 熱中한남어지의冒險이라니 웃을수업는 눈물겨운 情景이아니랴?

第三話 사랑을차저서 豆滿江건널라도 원수의바람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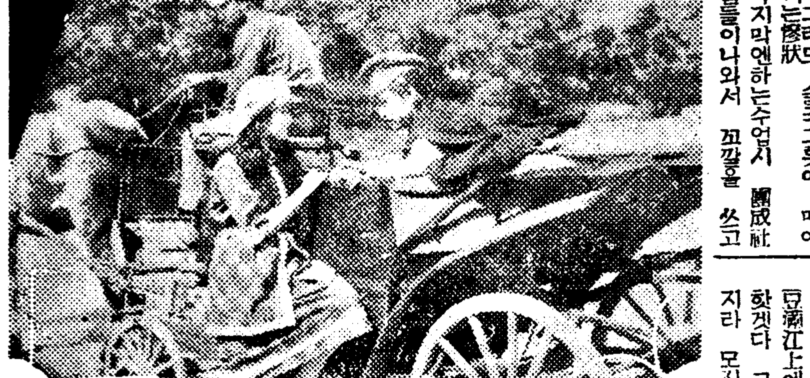
『豆滿江을건너서』가『저江을건너서』가 되고『저江을 건너서』가 다시『사랑을차저서』…이러케 갈곳이 『豆滿江을건너서』로 製作된 『사랑을차저서』의 曲折이다 春史 羅雲奎氏가『玉女』에서 失敗하고는 이遠征을 떠낫던것이엿다 때는 十二年前 氣慨도조코 意氣도 등등하야 豆滿江上에 移動撮影을 띄워노핫겟다 그랫더니 바람이부는지라 모진바람이 부는지라 이 濁流을 넘어오는 滿洲의겨울바람에 고만 移動船은 일허서 흘러흘러…… 드디어 移動船우에탓던 金玉禧도 사랑을 차저서가 아니라 하마트면 龍宮을 차즐번하엿고 會寧에서 五十里나되는 國境재로 戰爭場面 即 馬賊團파 一大激戰을 하려갓는데 여기도 그놈의독갑이바람이 날려와 化粧品이 고 변또고 모주리 날러가는데 이래서야 싸움을치를수가 잇서야지 이러케 製作된映畫가 서울서 封切되던때는 大正天皇이 崩御하신관게로 一切伴奏업시 解說도字幕대로만의 엿고… 이리하야 늙은喇叭手의 悲慘한運命이 스크린우에서도 슬슬하엿섯다

第四話 落花流水 江南달이밝어도 사랑에는미친다

世上엔 울리는映畫가잇다 울려도 어지간히우는게아니다。只今가트면 金蓮實女主人公은 토키의機械音迎해서 울엇슬렌데 無聲時代의울음은 구경하는손님이 대신토-키機械가되여서울엇다 이러케울린映畫가 한둘이아니로 눈물에 劇場이 떠날듯하엿다 江南달이밝아서 님이노던곳 구름속에 그의얼굴가리워젓네 이노래가 한때流行하던것도 이映畫때문이엿다 女主人公(卜惠淑扮)이 畫家에게失戀하야 미치는데는 正히卜惠淑氏의가장熱演의 一大名篇이라고하겟다。이卜惠淑氏가잘못하드면 큰코다칠번햇스니……東大門밧근내에서 로케를하는데 事實인족 失戀狂殺의場面이겟다 물이얏트니 그냥드러가도 괜찬라해서 悲劇의女主人公이 덤벙덤벙드러가는데 얏다던물이 수時로 몸을처서 고만떠내려가는데 하마트면 정말落花流水가될번하엿다

第五話 鐘소래 눈보래는첫서도 보이지안는눈보래

愛人(金蓮實扮)이 富豪靑年에게 빼앗겨간것을복수하야 다시차저온다는 이映畫의이야기 중에는 富豪를시무시한 大亂鬪事件이일어난다。그때만치더라도 活劇이旺盛해서 큰패싸움이 벌어지는데 오늘가티 『트리크』쓰는法을생각도안코 實感이나게한다고 그냥 디리때리고 쥐어박고하는데코피가 터지는것쯤은 약이요 눈에멍이들고 잇술이터지고 이래가지고서는 映畫審백엿는데『鐘소리』에서도 數十名의 負傷者를내엿섯다 이추에서도 또한가지 기맥히는일은 눈오는날의 場面을 백이는데 그前날밤 白紙로써 눈을만드러가지고 馬車에으로 펠단을 실어노코 그리고는눈을날리는데 눈보래 눈보래가 氣막히는 効果터퍼-센트로달리고잇섯다 그래서 撮影技師(李弼雨)는 흥이나서 기게를 돌렷는데한참 돌리다가 렌즈속을 드려다 보니 렌즈속에 몬지가 꽉꽉 드리끼여서 이때까지 헛박이고 말지안헛는가? 알고보니그놈의프로펠라가 하도馬力을내여가지고는외통으로지트러선이틈만 드러 이꼴이되고만것이엿다 (浪碳生)



寫眞上으로부터(1)『아리랑』前篇 英姬와 鉉求의『카쥬샤』場面(2)『落花流水』의미치는場面(3)馬賊과싸우는『사랑을차저서』(4)神父를차저가는『세동무』의거지取調하는場面(5)百年을約束하는『鐘소래』

팬에게求하는映畫祭

推薦/投票로 朝鮮名畫鑑賞會를開催

오리지날 씨나리오募集

朝鮮映畫에 잇서서 이미 참다운 오리지날 씨나리오를 要求하지 오래이엿고 따라서 이映畫祭를 機會로 널리 라이터-가 나와야하다 이映畫界方面의 새로운 藝術家를 求하는바이다 當選된 作品은 반드시 映畫化하기로 되여잇서서 在來의 映畫製作에 一大缺陷인 씨나리오難을 打開하는 새길을 차즈라한다 眞實로 朝鮮映畫의 將來를 광하고 더욱 朝鮮映畫의 將來를 生覺하는 이는 이機會에 爭先應募하기를 바란다

▲期限 昭和十四年一月末日까지

▲枚數 最低四十枚(四百字)以上 百枚以內

▲賞金 佳作一篇 百圓 佳作二篇 五十圓

▲受信 朝鮮日報社 學藝部映畫係로 보내되 괴봉에『씨나리오在中』이라쓸일

▲注意 반드시 오리지날씨나리오에限하며同時에 劇全體의 梗槪와 說明을 반드시 붓칠일

이번 제일회 영화제(映畫祭)에잇서서 한편 조선영화 전람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이십륙, 이십칠, 이십팔 삼일동안 부민관(府民館)에서 이때까지 조선에서 제작된 영화중에서 가장 대표적작품중 무성영화삼본(無聲映畫三本)과 발성영화삼본(發聲映畫三本)을선출하야 무성영화에는 옛날의 명해설자와 당시 상설관의 전속으로이던 악사의반주로 상영케될터이다 그런데 이상영에 대해서는 일반투표에의하야 이를 결정하기로 되엿는바 현재까지 제작된 작품이 백여본에달하나 이를 허러서 도저히 상영에 쓸수업는것도잇고 그뿐아니라 그중에 필름이 상실된것도잇고 또 잇다고해도 필름이 허다한 작품을 일일히 기억못할여러가지 관계로 이번 준비위원회에서 가급적상영할수잇는 정도의 작품 사십오본을 선출하야 이여러중에서 투표하기로 결정하엿다

無聲映畫部

1、아리랑(前篇) 主演 羅雲奎 申一仙
2、風雲兒 主演 羅雲奎 金兌鎭
3、流浪 主演 林 和
4、먼동이틀때 主演 姜弘植 申一仙
5、들쥐 主演 羅雲奎 申一仙
6、落花流水 主演 李源鎔 卜惠淑
7、잘잇거라 主演 羅雲奎
8、벙어리三龍 主演 羅雲奎
9、사랑을차저서 主演 羅雲奎
10、젊은이의노래 主演 羅雲奎
11、鐘소래 主演 羅 雄
12、野曲僧房 主演 成春鶴 李慶善
13、바다와싸우는사람들 主演 羅 雄
14、梅心曲 主演 尹逢春 金英泰
15、鐵人都 主演 羅雲奎 林 鶴
16、金剛恨 主演 羅雲奎
17、鍾 路 主演 羅雲奎
18、임자업는나룻배 主演 羅雲奎 文藝峰
19、開化黨異聞 主演 羅雲奎 尹逢春
20、守一과順愛 主演 尹逢春 金蓮實
21、바다여말하라 主演 沈 影 徐月影 主演 尹逢春 金蓮實
22、세동무 主演 李源鎔
23、靑春의十字路 主演 朴 濡 金蓮實
24、前科者 主演 李慶善 金寅圭
25、무지개 主演 獨銀麒 張斗翰
26、洪吉童傳 主演 金蓮實
27、人生航路 主演 李源鎔
28、逆 襲 主演 李錦龍 卜惠淑
29、銀河에흐르는情熱 主演 李源鎔
30、아리랑後篇 主演 羅雲奎
31、純情海峽 主演 金一海
32、大盜傳 主演 金蓮實 金振文
33、春 風 主演 文藝峰

發聲映畫部

1、春香傳 主演 文藝峰
2、薔花紅蓮傳 主演 文藝峰
3、아리랑고개 主演 盧載信 崔雲峰
4、迷 夢 主演 羅 雄 文藝峰
5、五夢女 主演 盧載信 崔雲峰
6、洪吉童後篇 主演 金寅圭 李錦龍
7、나그네 主演 王 平 文藝峰
8、漢 江 主演 尹逢春 李錦龍
9、更生錄 主演 李錦龍 金信哉
10、沈淸傳 主演 金素英
11、軍用列車 主演 王 平 文藝峰
12、漁 火 主演 羅 雄 朴 學

投票規定

一、用紙 官製葉書
二、期日 今月二十日까지
三、受信 京城府太平通朝鮮日報社學藝部映畫係
四、投票方法 別記選定映畫中에서無聲映畫三本 發聲映畫三本式題名만記入할일
五、注意 반드시住所氏名을明記할일
六、薄謝 當選百名에限하야 싸인한俳優프로마이드進呈

一般出品을歡迎

이번 영화제가운데 한부문인영화전람회는 조선영화의 거러오길을 엿볼수잇는동시에 영화라는것이 어떠케 제작되여서 어떠한 길을밟어 우리가 볼수잇게되는 그과정을 자세히입체적으로 보여드리겟거니와 십數년동안이나 가진 풍상을 겪꺼온만큼 귀중한 참고자료(參考資料)가 산재하야 도저히차질길이 업는것도잇고 또 세상이모르는 문와(朝鮮映畫文化)에 관심한분도 적지아니 잇슬줄을 밋는바이다 이런기회를 타서 "프로마이드" 한장이든 프로그람한장이라도 모두가 귀중한것이니 지신분은 이번사업의 진의를 충분히 이해해 가지고 솔선하야 출품해주시기를 희망하는바이다

一、出品場所 京城府太平通朝鮮日報社事業部內映畫祭準備委員會
二、出品時日 十一月二十日까지
三、出品種目 朝鮮映畫에關係된一切資料(포스터、프로그람、빌라、프로마이드等其他)
四、保管 出品한 物品은 一切責任지고 本社에서返還함

東洋劇場 靑春座公演 明(十四日)밤부터
李瑞求作 三幕四場 悲戀
꿈이면깰수나잇스련만깰수도업는괴로운꿈을안호재로울며울며보내는主人公들의生涯는우리에게무엇을暗示할것인가? 보라 人情劇을그리며斯界에獨步의李瑞求氏의快作

東洋劇場(暖房裝置) 今夜(十三日)뿐 靑春 林仙圭 作 絕讚!好評의 夢

府民館 無聲映畫紀念大祭
十一月16・17・18日 三日間
晝間(二回續映)正午始映 夜間 七時始映
解說界의權威總出動
說明1(無順) 李丙祚 崔丙龍 尹相昊 徐相華 李熙興 成東鎬 朴應善 韓昌錄 孫性 李性根 金永淳
無聲映畫記念大祭의擧行? 우리는못한바잇서 懷舊와奉仕의一念으로無聲映畫大祭를擧行합니다 여러분의記憶에잇는분或은 라진분等解說界의權威와猛將 二十數氏가一堂에 모이어 空前의 大企劃이려니와 豪華大作을 는비단우에수 놋는感이업지 아니합니다 보라드르라 無聲時代의아름다운追憶을끄으러 눈아페벌녀놋는 거륵한大饗宴에
主催 在京解說者有志一同 東洋劇場映畫部
後援 每日新報社 (暖房裝置)

女性 送年號 二十錢(送料二錢)
京城太平通一丁目一六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李愛內孃 錦衣還鄉한 一記者
懷想깁흔片紙公開
◆毛允淑氏書簡集에서……A記者
▲林貞姬氏書簡集에서…B記者
▲李應淑氏 書簡集에서 C記者
時調二篇 春園
詩 別後……金大鳳 千年……朴承杰 壇鄉愁……金朝圭
畫報 ▲除夜 ▲錦衣還鄉한兩音樂家 ▲最近映畫 ▲各種流行品 ▲家庭婦人金剛山노리
★미쓰巴里 ★미쓰英吉利
許英肅氏產院探訪記……女記者
文學의로맨스——咸大勳
外國人이본朝鮮婦人 金永義
尹致昌氏家庭風景 N記者
中篇 슬픈解決 方仁根
短篇 靑春 朴魯甲
短篇 哀史 盧子泳
罪와罰의書……金汝植
讀者文藝 月光曲(詩)朴魯春 想念(詩)靑明 가을밤(詩)尹君善 적삼(童謠)吳信惠

첫눈오는밤
▲感激의밤……金晋燮
▲神秘의밤……李軒求
▲아름다운눈……毛允淑
▲기쁜밤……李源朝
▲거룩한첫눈……盧春城
▲첫눈의誘惑……桂鎔默
▲그날밤……李相昊

女

表紙 鄭玄雄 挿畫 金熊超 崔根培

戀愛結婚問題와座談會
出席人士 李甲洙·金晋燮·張文卿·朴慶浩·許河伯·崔善福·朴順天
靑春期의戀愛。結婚—子女의戀愛는 正當한가。戀愛期의 子女에對한態度。結婚은 戀愛에서 出發할것인가。理想的結婚은?。結婚儀式은어찌할까。新婚施行問題
▲女性싸롱 ▲女性放送室 ▲主婦메모 ▲女性界消息

戀愛結婚弊害論 金昶濟
戀愛結婚에失敗한그女子의告白……孫錦淑
戀愛結婚에勝利한그男子의告白……李英
戀愛結婚論 李勳求